

형사소송법

2013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2011년 6월 7일 02:00경, 교통사고발생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甲은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경과 후, 사고운전자 乙이 후송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乙이 음주운전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甲은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乙의 아들인 丙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 丁으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乙로부터 채혈을 하게 하였으며, 丁은 채혈을 할 때 무알코올솜을 사용하였다. 甲은 丁이 채혈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였으나, 채혈과 관련한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 1) 법원은 乙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가? (30점)
- 2) 만약 甲이 丁으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된 乙의 혈액을 제출받아 감정의뢰한 경우, 甲의 수사행위는 정당한가? (20점)

제 2 문. 甲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부하직원인 乙녀를 여관으로 데리고 간 다음 乙녀가 계속 구토하자 구토물이 옷에 묻지 않도록 옷을 벗기는 순간 욕정이 생겨 항거불능의 상태인 乙녀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상처가 생겼다. 검사 A는 甲을 준강간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甲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乙녀의 상처가 상해의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만약 항소심 변론종결 직후, 검사 A가 준강제추행죄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면 허용될 수 있는가? (10점)
- 2) 위 사례와 같이 항소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가? (20점)

제 3 문. 2012년 11월 5일, 甲과 乙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상호간에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죄로 입건되었다.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甲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의 재판장은 자신에게 약식명령장을 발부한 판사 丙이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정식재판의 진행 중에 甲은 재판장 丙이 이미 약식명령을 내렸으므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甲이 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방어방법은 무엇인가? (10점)
- 2) 만약 제1심 법원이 甲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면, 甲이 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구제절차는 무엇인가? (5점)
- 3) 약식기소된 甲과 달리 검사가 乙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甲이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은 무엇인가? (5점)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장



안전행정부

형사소송법

1 / 1